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전주시, 9월 말까지 폭염대책 기간 운영·안전대책 추진

갈수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햇빛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오고 여름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주시는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입구와 종남문 교차로, 충경로 사거리, 오거리 문화광장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11곳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했다.

특히, 그늘막 쉼터는 기존에 설치했던 일반 전막형과는 달리 도시미관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 화려한 색깔의 천으로 제작됐다.

전주시는 예술적 감각이 입힌 그늘막 쉼터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과 팔달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만큼,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고 예술감각을 간직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그늘막 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각 동별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1~2개 정도의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폭염대책 기간 관련부서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기가 갖춰진 경

로당과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관내 44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과 통장 등 1,8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 수시 안부 전화 및 건강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석유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및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 예방대책요령 등의 현장방문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쩔 수 없는 폭염이라면 세심함과 아름다움으로 극복하겠다"며 "횡단보도에 선 시민들을 작열하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강한 색상의 그늘막을 녹음 우거진 가로와 대비시켜 컬러풀 전주, 여름이 즐거운 전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국민인수위 제안접수 창구 운영

7월 12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에 '국민인수위원회 in 전주'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정책과 인재 추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민인수위원회를 25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국민인수위원회 in 전주'는 시민들의 정책제안이나 인재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새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영수 자치행정과장은 "시청 홈페이지와 SNS,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인수위원회 in 전주'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새 정부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제59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 꽃심 전주 선포 1주년 기념행사가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67만 전주시민 화합·단결 도모

전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

'제59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1주년' 기념행사가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북중기청장 등 관내 기관장들과 시민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67만 전주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전주시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8명의 시민에게 각각 전주시

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을 시상했다.

올해의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김태환(교육장), 김종연(문화장), 박동열(공익장)이며, 임현(인후2동), 서문양남(금안2동), 김영숙(평화1동), 방명근(팔복동), 이형순(덕진동) 씨 등 5명은 올해의 모범시민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에 이어 지난해 열린 '제58회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된 전주정신에 대한 홍보 동영상 함께 시청했으며, 전주정신 선언문도 낭독해 전주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정신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전주정신을 알기 쉽게 풀어쓴 스토리북 '꽃심 전주'를 제작, 이날 참석한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인재용 기자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꿈이 현실이 되다

'사람'에 무게중심...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편의 위해 그늘막 쉼터 등 설치 '끝까지 민원 동행' 시정 등에 운영 '엄마의 밥상'·부실채권매입 소각도

전주시가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는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각종 시설과 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펼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설의 경우 시는 최근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에서 내리쬐는 햇빛과 아스팔트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겨울철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에 탄소발열 열의자를 설치했다.

특히 전주시는 전북대 구정문에서 덕진공원 중심의 연못 인근까지 500m 구간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도 조성 중이다.

이 길에는 낮낮이 없는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점자안내판, 난간손잡이, 유도블록, 숲과 어우러진 쉼터 등 편의시설물도 들어선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사 현장 곳곳에는 공사를 알리는 단순한 알림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감성적인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을 끝까지 동행하며 해결해주는 '끝까지 민원 동행'을 시정과 양구청에 설치·운영하는 등 진절 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람을 향한 정책의 경우 우선, 민선 6기 첫 결재 사업으로 약자 우선,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실현의 의지가 집약돼 있는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꿈꿀 수 있다. 365일 매일 새벽 배달되는 도시락 덕분에 현재 280명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게 됐고, 시민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엄마의 밥상' 배달



부실채권매입 소각 행사

또한 빛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빈곤의 대물림되지 않도록 서민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무상 소각해 빛을 탕감해 주는 금융복지를 펼치고 있다. 빈곤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민 46명의 부실채권을 소각한 이후 후원금이 줄고 있다. 동시에,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설치해 채무관리,조정상담, 법원서류 대행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도시는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와 다르지 않다"면서 "가장 미래도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다. 사람을 위한 시정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아동·여성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오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주시가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나섰다.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와 여성폭력 예방시설 종사자 등 4개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은 전주단오제를 맞아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예방 전단지 배포와 사진전시 등을 통해 폭력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캠페인 첫날인 30일에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자활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성매매는 범죄이다'를 주제로 여성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오는 6월에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폭력추방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전주 시민들에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3만7,520필지(완산구 6만1,510,덕진구 7만2,370)에 대해 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는 한옥마을, 지가 현실화를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4% 상승(완산구 3.84% 덕진구 6.23%)했으며, 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풍남동2가 21.43%, 최저 상승지역은 진북동 1.2%이다.

또한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시동 상업용 토지(현대약국건물)로 669원/㎡이며, 최저 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자연림으로 725원/㎡이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